

새로운 조경수(V)

아까시나무의 생육특성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김사일/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아까시나무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890년으로 도입초기의 목적은 황폐림지 녹화 및 연료림조성이었으며 또한 기대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황폐림지가 녹화되고 연료난이 해결되고 나니 아무 쓸모없는 나무로 전락하고 말았다.



3

1. 아까시나무
2. 민둥아까시 나무
3. 꽃아까시나무

과연 아까시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일까?

이에 대해 세계각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 환경수 및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를 흥미해 보고자 한다.

1. 아까시나무의 종류

아까시나무는 원래 북미지역



1



2

이 원산지인데 세계각국으로 유입되어 식재 및 재배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많은 품종이 개발되어 엷색이 녹색, 자색, 황색, 백색인것, 화색이 백색, 자홍색, 선홍색, 홍색, 홍자색, 담홍색, 자색, 대백색인것, 꽃의 모양이 겹인것과 홑인것, 가지에 가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꽃이 초여름에 피는 것과 늦가을까지 피는 것, 수형이 관목성인 것과 교목성인 것 등 그 종류가 많고 다양하며 지금도 신품개발을 위하여 육종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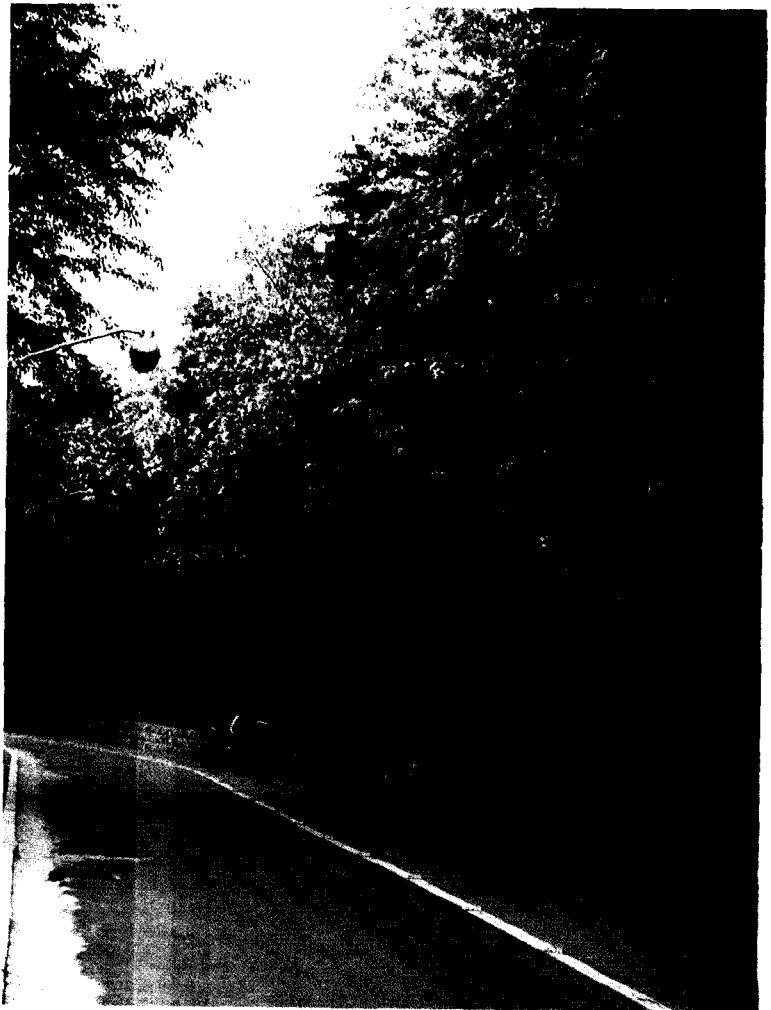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보통 아까시아라고 부르는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L.)와 아까시나무의 변종인 나무에 가시가 없다고 하여 이름이 붙어진 민둥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var. *umbraculifera* DC.) 그리고 꽃색이 분홍색인 꽃아까시나무(*Robinia hispida* L.) 등 3종이 있다.

2. 아까시나무의 생육특성

- 수고 10~15m, 직경 30~50cm 까지 자라는 낙엽활엽교목이다.
- 유묘시에 성장이 빠르고 맹아력이 왕성하다.
- 꽃은 5~6월에 피며 백색이고 꿀이 많고 향기가 있다.
- 뿌리는 천근성이며 길게 뻗고 질소고정균이 공생하고 있다.

- 번식은 종자, 접목, 삽목, 근삽, 분주등으로 한다.
- 전지와 단간에 잘 견딘다.
- 유묘시는 약간 음성이지만 자라면 양성이 되므로 수하 식재는 부적합하다.
- 입지에 대한 요구도가 적기 때문에 척박지 및 황폐지에서도 비교적 잘 자란다.
- 과습지, 점토 및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아까시나무 가로수



• 한해, 공해, 병충해에 강하므로 사후관리가 용이하다.

3. 아까시나무의 조경수로서의 활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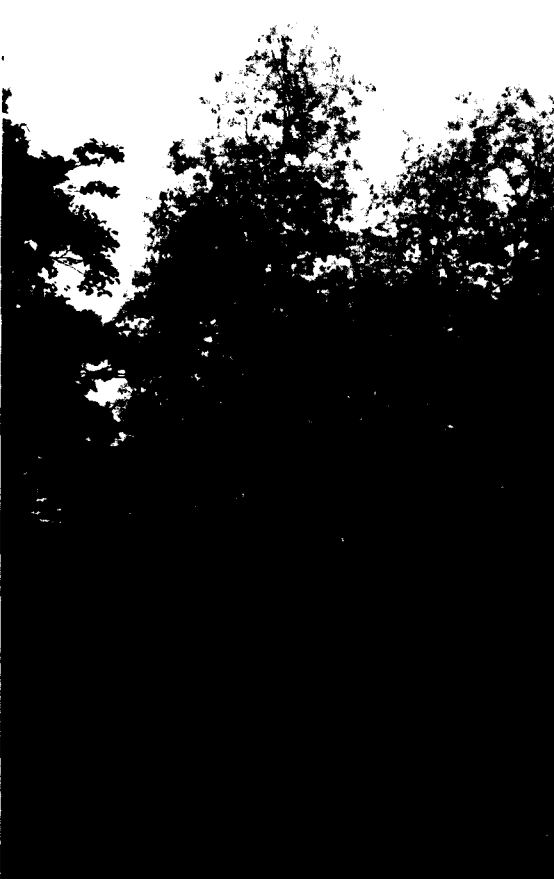
아까시나무의 원산지인 미주 지역은 물론 17세기경 구주각국에 유입된 아까시나무는 꽃을 감상하기 위하여 공원 및 정원 등에 식재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936년 당시의 궁전인 지금의 파리 식물원에 처음으로 조경수로 식재한 것을 비롯 현재까지

공원 및 정원 등의 조경용으로 식재되고 있다. 특히프랑스 혁명 때는 아까시나무의 개화기인 5월6일을 아까시나무의 날로 정하여 축제행사를 하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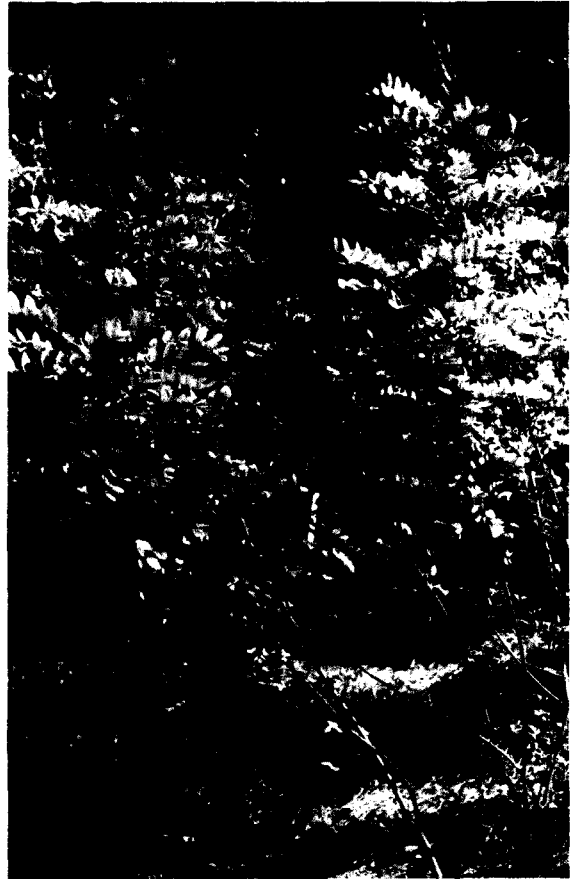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천을, 여순, 신경, 봉천등 넓은 지역에 공원수 및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여 왔으며 산둥성(山東省)에 는 거대한 고목이 많고 특히 청도를 아까시나무반도라고 할 정도로 아까시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다. 그리고 제남과 청도사이의 철도연

1. 아까시나무 공원수

2. 꽃아까시나무 정원수



1



2

“

우리나라에 아까시나무가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890년으로
 황폐림지 녹화 및 연료림조성에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황폐림지가 녹화되고 연료난이 해결되고 나니
 아까시나무는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각국에서는 이러한 아까시나무를 환경수
 및 조경수로 활용하고 있기에 그 가치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

변과 그 지선을 합하여 2,700리에 아까시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1878년 동경 소재 日北谷공원에 조경수로 식재한 것이 최초며 그 후 각급 학교의 구내 및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앞서 설명들 인바와 같이 초기의 도입 목적은 황폐지녹화와 연료림 조성이었지만 그후 철도변 및 가로수로 식재하여 왔으나 현재 이렇다할 만한 곳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과거의 조림목적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공원 및 도시주변과 도로변에 집단적으로 성립이 되어 환경 및 경관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4. 아까시나무의 조경수로서의 활용성

5월은 신록의 계절로 야외에 이렇다 할만한 꽃이 별로 없는 때라 독특한 꽃향기와 눈송이 같은 흰꽃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아까시나무꽃의 아름다움은

5월의 꽃의 여왕이라하여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아까시나무는 과습지, 점토, 염분이 많은 곳만 피하면 어떤 곳에서나 잘자라고 한해, 공해, 병충해에 강하므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도시 및 공단주변과 유원지 등의 환경 및 경관림 조성용으로 가장 적합한 나무라고 생각한다. 아까시나무는 천근성이어서 가로수로서는 풍도의 염려가 있다고하나 외국에서도 가



민동아까시나무 정원수

로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전지와 단간을 하여도 잘 생육하기 때문에 전지와 단간으로 수형과 수세를 조절한다.

한편 뿌리의 발달을 촉진한다면 풍도는 그렇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며 곳에 따라 벗나무 가로수를 아까시나무로 대체해도 좋을 듯 싶다.

민동아까시나무와 꽃아까시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원 및 정원에 조경수로 식재하고 있으나 그리 많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외국에서 이미 개발돼 있는 좋은 품종을 도입 증식하는 한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면 도시공원, 도시내하천변 신도시건설의 녹지, 정원등에 조경수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각같아서는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아까시나무의 날을 제정하여 축제행사를 갖는 것이 진해군향제, 전북의 벚꽃길 걷기 운동등의 벚꽃축제 행사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